



지난 달 30일(월) 조선일보에서 서울 외대생 조선일보보도대 1인 시위를 한 김동현 심지, 대학교수, 우리학교 동아리 회원인 그대기와 이인사까지 함께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그대기와 심지는 조선일보의 우리 대가 조선일보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윤인배부터 등록금 투쟁이 여러가지 협의의 안들을 내놓고 일련되 되었다.

4 '복합정도는 대한민국의 민주복지' 남북의 지도자가 만든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6·6 협정등인 이후 통일외교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여전히 불합리한 법제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학 반학과 교수들이 모여 통일시대 바른 법제에 대해 논의를 보았다.

5 지난 1일(화) 열린 세계노동절 11주년 및 이 기념대회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6 대학에서의 시위는 어떤 것일까? 5기 선대회 의숙한 수능대(대)에는 한없이 막막하기만 한데... 가끔 교수들의 눈치를 보며 캠퍼스 하고, 발레하고 고대도 하면서 보게될 대학에서의 시절들. 그 문체점은 없는데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7 '우린대 실을 그는 그대'로, '우린대'이 이기기는 노동문학을 읽어본다.

노동절 기념 집회, 3만 5천여명 참여

지난 1일(화)은 노동절 11주년 기념일로 전국 8개 도시에서 3만 5천명이 기념시위를 벌였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경 3만여 명이 모여 노동자대회를 준비하는 밤대회를 가졌고 오후 2시경 대학로에 결집하였다. 사전마당에선 문예단 마당이 인근 시민들의 시선을 모았고 여성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대표들이 투쟁성안시를 진행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3시경에 시작한 본대회는 민주노동 이흥우 사무총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민주노동당 당부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신자유주의 반대, 갑대중 퇴진'이라는 투쟁방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월)에 민주노동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북한노동자와 공동으로 남북 노동절 공동행사를 실시할 것과 관련, 단 위원장은 "남북이 함께할 뜻 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뒤를 이은 백기완 선생은 격려사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미국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계속해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의장, 조종훈 건강관리 정책위원장, 학부부 대표 이광식 씨의 연설이 이어졌다.

연설 이후 노동절 기념 성직의식이 진행되었는데, 대우자동차 노동자 2백여명이 화염병 투쟁의의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세계 노동절 11주년 기념 투쟁 선언문 낭독이 있었고 분행시의 막이 내렸다. 본 행사를 끝낸 시위대는 종각까지 행진하였다. 사전 집회현장을 관화문 시청 앞까지로 했지만 종각까지의 행진이 난 상태였고 경찰은 종각에서 시위대를 격퇴하였다. 하지만 6시 30분경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현충문 뒷밭을 앞세운 5천여명의 학생들이 명동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뒤를 민주노동당 소속 금속연맹 노조원들이 따랐고 나머지 시위대가 후에 합류하여 시청 앞 분수대 주변을 가득 메우고 정렬집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91년 우루과이비관대 반대투쟁 이후 첫 시찰집회라고 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130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 집행부이며 전국학생투쟁위원회의 스태인 권형은(중앙·일본어 97)은 "노동절을 통해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위는 91년 우루과이비관대 반대 투쟁 이후 처음으로 시청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32년 명(수도권지역)의 노동자, 학생들의 모습이다.

한편 대구에서는 시민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제보상공원에서 본대회가 열렸다. 김대중집회 반대"를 구호로 내건 이 대회에서 반대 일 수선부위원장은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생명이 너무 침담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복수노동 금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례회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노동절 기념 영남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이 대회는 민주노동당 부산지역 본부 주최로 열렸으며, 노동자를 비롯한 학생과 시민 등 4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달 30일(월) 전북대 구문관에서 점자제를 마치고, 1일(화) 호야백화점 앞에서 노동절 기념 본대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대학원, 여성노동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문헌진 신부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한 시간 반 가량 본대회가 진행되었다. 이 후 집회참가자들은 코야백화점에서 라동트까지 두 시간 동안 가두행진을 벌였다.

대학평의원회 열려 등록금 책정위 건설 논의

지난 달 27일(금) 열린 25차 대학평의원회(대평)에서는 본안건으로 △대학평의원회 실질적 의결 기구화 △등록금 책정위원회의 건설 △학내 연안문제 등이 상정, 논의됐다.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내규상 '심의기구'라는 내용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 규정이 함께 명시돼 있어 모호하게 되어있다. 이에 실질적 의결기구화에 대한 학교교의 입장이 불분명해 총학생회는 대평의 내용을 수정해 다음 번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등록금 책정위원회의 건설 논의에 관계해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교무처장, 재단 관계자, 학생대표 3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학교교이 제안함에 따라 15일 이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평에서는 조교제 개선도 '조교제 선취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내 놓았다. 이와 관련 윤인배부터 부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언어 94)은 "실질적으로 지난 등록금 투쟁시 합의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작성할 때와 비교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합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경 기자

용인 등투, 2% 환불 등 합의안 작성

지난 4월 19일(목) 용인용인배부터 등록금 투쟁이 등록금 인상분 2% 환불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작성하고 일련되었다. 이 합의안은 18일(수) 부총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협정한 기밀의문을 토대로 19일(목) 총장과 최정환의문으로 △등록금 책정위원회의 건설 △학사구조개편안 재논의 및 민주적 결정 △경비의 대한 설문조사 등 골조까지 합의 사항으로 이뤄졌다. 또한 단과대 및 각 자치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과 무기한 수업거부 기간 동안 수업거부를 한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대평광장에서 열린 비상학생총회 및 등록금 투쟁 소위원회에서 총장과 총학생회장은 평화선

언문을 낭독하고 작성된 합의안을 발표했다. 부총장, 학생회장 등 학교측 관계자들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 등이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조규철 총장은 "과제가 어려워진 것에 앞서 잘 해결되어 '크게게 생각한다'며 "기대 한 번 있으니까 이제 많이 끝을 낼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장 양승은(동유럽·폴란드 95)은 "학생들이 대화와 논의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합의된 내용을 실천해 감으로써 믿음을 키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비상학생총회에 이어 진행된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해무단 공인 △마라톤 시상식 등의 행사가 열렸다.

이수경 기자 seouwater63@hanku.ac.kr

교직원 퇴직금 일괄 정산키로

교직원 퇴직금이 일괄적으로 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퇴직금 정산계획은 2001년 2월 28일부로 퇴직금을 통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300여명에 대한 1차 정산을 실시하고, 자연퇴직자와 명예퇴직자에 대한 정산처리와 함께 매년 재직자가 끊어질 수 있는 퇴직금으로 해나가게 된다. 또한, 퇴직금 통괄일시와 시기적 차이분은 후환금리로 적용해 보상하게 한다. 이러한 결정은 재무위원회(위원장 양승은 교수)가 우리학교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의 일환으로 기금규수적으로 늘고 있는 퇴직금을 일괄 단 짓기 위해 제안한 것을 이사회에서 법률적 검토 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법률적 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는 것

으로 드러나 관련부서인 총무처에서 구체적 퇴직금 지급계획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일괄적 정산이 시행되더라도 이를 총괄할 자금이 확보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 교직원들은 전체 299명으로, 이들이 받게되는 퇴직금 총액은 230여 억원인 학교부담액을 감한 금액에 대해 현재 퇴직적립액은 40여억원으로 매우 부족할 전망이다. 이사회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지만, 자금경색을 불러올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학부

양 배움터 4·19기념 마라톤 대회 열려

지난 달 19일(목) 용인용인배부터 해방광장에서는 '4·19 기념 마라톤 대회 및 등록금 투쟁 승리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비상학생총회 △총장과 총학생회장의 평화선언문 낭독 △승리대 공연과 함께 오후 4시 30분으로, 4·19를 기념해 모현까지 마라톤이 진행됐다. 약 7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마라톤에서 플라카와 단체수송을 차지했으며, 학생 자치원들도 학생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했다. 이와 관련 부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언어 94)은 "4·19는 우리의 선배들이 생명을 던져가며 정권을 내놨다"며, "학생적인 생명들과 학생들이 함께 마라톤을 했듯이 앞으로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오늘날에 한사람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19'기념 정산계승' 마라톤 대회가 지난 19일(목)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노란색에서 간단한 집회를 진행하고 승리대 4·19지역까지 마라톤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4·19지역에서는 기념달 앞에서 목단, 학생자 영정 참배, 4·19기념 기념관 순배를 진행했다. 마라톤 대회 이후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배 오픈 상단기 참가자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하고, 해외로실린 진행했다. 이날 총학생회장 이흥우(사회·정치외교 97)은 "교육투쟁 승리를 계속 시아나하겠다"며 "이 땅의 아이들을 끌어안고, 투쟁하는 외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한성민 이석규급 협의하다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2년전부터 암투병이셨던 아버지. 한총련 대의원이기는 이유로 아버지의 병문안 조차 마음껏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배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시도 쉽게 찾아볼지 못했던 이 딸. 아버지... 아버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도 한결같은 속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시도 쉽게 찾아볼지 못했던 이 딸. 아버지가 영결미사가 막 끝나고 운구가 적에 옮겨지는 천나. 눈물을 채 뒤을 세도 없이. 아버지의 뒷모습만이라도 오래도록 보고 싶었는데... '뉘'라는 천구의 말을 듣고 그저 단아니아만 했습니 아버지... 아버지... 한총련 대의원이기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식조차 관가지 지기 못한 이 딸. 용서해주세요.

신혜민
· 8·9기 한총련 대의원
· 2000년 교육투쟁과 이사회위원회
· 2001년 총학생회장

비자

호서대 철학과 폐과결정에 대한 단상

▲한인이 위치한 지난 3월 호서대학교는 철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80년 학부제를 도입한 이후 90년 제1 전공자가 2명이었다는 것이 급기야 지난 해에 한 단 학생 3명만을 남기고 철학과는 폐교를 결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지난 3일 학교당국의 폐과 결정이 있는 후 철학과 동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등 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직 학교당국의 방침과 구성원간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학교의 정책 자체가 '철학과 폐과'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지난 해 11월 중앙일간지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논점을 공개 하였다. 다음 아님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지원율이 정원에 미달했다'는 기사였다. 전체 지원율 평균이 80%에 비해 인문. 자연계열은 70%의 지원율 밖에 보이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한 일간지는 대학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인문·자연계열의 지원율(등록생/정원)이 70%대로 떨어진 것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고 보도했다. 지원율 미달이 학문의 위기와 규명자를 수 있는 것이라며, 철학과 폐과는 학문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규정은 학자들에게 따라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부제 도입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경쟁의 논리-신자유주의가 모든 학문의 기초와 할 수 있는 인문학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인정이 한층 강해지려면, 이에 반대로해서 서서 일의 위기를 타개하는 담담한 인간 존재를 규명하는 인문학에 대해 지원과해, 사회과학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고수하려는 '복합쟁이'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지리한 논쟁은 인문학 내부의 자생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에 강한 거스르기도 나타내고 한다.

▲'어느 관이 좋은가' 하는 질문을 누가 내게 묻는다. 내 후배 녀석에게도 들었다. 현재까지 신장생인 이녀석이 첫 시험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가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입사했는지. 난 경연이 아예없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천구의 신체가 폐과결정이 내리니 철학과에 모습에 많이 벗어나 있지 않는 듯 보였다.

민족주요언론
외대학보
편집장

르노노동절 111주년 기념집회에서 만난 사람들

111년전 노동자들이 남긴 현재진행형의 과제

1889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공장의 모든 기계가 작동을 멈추었다. 매일 14-1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과 방어를 내거어도 박한 저임금에 신음하던 노동자 190만명이 총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그들은 '하루 8시간 노동'과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를 외치지만 돌아온 건 폭도라는 누명과 기속한 탄압이었다.

그 후 1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은 평화로운 기념일일 수가 없었다. 노동절은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한 민중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동자들의 성난 함성이 울려 퍼진 지 111년이 되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있을까.

지난 1월(화) 오후 1시 30분 경,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흥겨웠던 노동절 전야제의 여운을 뒤로 하고 경매대를 떠났다. 2차 집결지인 대외로에 가기 위해였다. 금요일이라도 빔빔들이 똑똑 떨어질 것 같은 침침한 날씨였다.

목적지인 해운대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와보니 먼저 도착한 시위대가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중 기자의 관심을 끈 것은 가짜단위로 보이는 참가자들이었다. 부상 가능성 미처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왜 가짜와 동행했는지에 의아해 하고 있을 때, 한 모자가 기자의 의문에 답을 주었다. 두세살 정도 보이는 딸이 아버지의 등을 의해서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딸에게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빨간 머리 띠를 매고 있었다. 아버지의 표정에 배어



오른, 더 울음을 짓지 않다는 비장함이 그의 가족을 거리로 나오게 하였다. 시위현장에서는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대우자동차 경리대리인인 손씨가 많은 만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나이가 34이 라고만 밝힌 한 해고자는 차분한 어투로 해고 당시부터 폭력집안사태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 해 주었다. "2월 19일날 누웠더니 정리대리인 손씨가 나왔었다. 그리고 4월 6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은 노동자의 사업장 집안을 불법으로 막았다. 그후 4월 10일 경찰차 폭력적인

이 있었던 것이다"고 전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왔다"고 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밝힌 호텔 롯데 박주상(42)씨. 그는 대우자동차 폭력집안사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자신 롯데 호텔에서는 경찰의 괴롭힘이 문제가 됐다. 우리는 이런 사투에 합법적인 대응을 했지만 경찰의 태도가 일정 선을 넘으면 우리도 노동절에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다. 시위라는 가장 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학생 참가자 구민경(상경·

무위)의 발언의 말 또한 현 정권을 향한 시자후처럼 들린다.

시위대행이 끝나고 본대회가 시작됐다. 잠시 발걸음을 늦추고 구경하는 행인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인제 인도는 거의 통행불능상태였다. 집회 입구에서 안내를 하던 일부 부대원에게 대학로로 진입 안하라는 질책이 있는 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20% 가량 감소한다"면서도 "오호하만 이리였는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노동절 기념 투쟁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본행사가 마무리되고 참가자들은 평화로운 행진에 돌입했다. 가두투쟁을 벌이던 참가자들은 이번 시위때문에 대오는 증가가 머무르고 있었다. 이 때 우리의 학생들이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머지 대오는 그뒤를 따랐고 곧 이어 시정 앞 광장은 깃발여명이 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한 소리 불렀다. 그날 집회 참가자들은 94년 12번대투쟁 이후 7년간이 처음으로 시정 앞에서 성공적인 집회를 열었던 것이다.

정리대리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폐회 연설을 하는 가운데 NMD를 상징하는 모형을 이마사일과 성조기 화형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탄막 소리를 내며 시위대는 성조기와 함께 노동자들의 함성은 이미 어두워진 하늘 속으로 사라졌지만 한 세기 전부터 계속된 노동자들의 외침은 노동행방의 그날까지 들려올 것이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o.net



목숨을 건 30일 단식의 이유

작년 6·15공천선언은 남북의 최고위급이 합의한 점, 통일로 가는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교류협력 방법 등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새로 정권을 잡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철저한 상호주의 바탕을 둔 대북강경책을 추진하여 남북간 화해분위기를 다시 대 걸두로 끌어가지지 한다. 이에 미국의 행동을 규탄하며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반미 단식투쟁에 나선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학생 등 명이 있어 그들을 만나보았다. 편집자

그들은 처음의 당당했던 모습과는 많이 많이 쇠약해진 듯 했다. 붉은 광장에 설치된 작은 천막이 이들이 하루 일과와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단식을 시작하던 12월(화) 금요일 현재)를 맞이한 엄정화(사학·신방 08)와 김민재(사학·영여 07)군은 이규동(공대)을 깨고 무겁고 쉽게 피곤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같 같은 이치도 많다. 당초 계획한 한 달을 채우려면 지금까지 보다 더 긴 시간이 남아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누구보다 쉽게 소생하려 하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단식에 돌입한 것일까.

6·15공천선언 이후 남북간의 평화회담이 자주일기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정권은 주한 미군의 군사력 증강을 대북강경책으로 화해분위기를 깨고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의 본질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임영은 단식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반미강경이 극도로 고조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인지도도 가진 사안이다. 대북강경책 철회, 부당한 반강간중 중단 그리고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배상추구 등이 이들이 내건 과제다. 김군은 "자신 한 해는 반미 강경이 심화될 해"라며, "소수 단체들의 주장이었던 반미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반미투쟁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그는 98년 초에 개관된 '최심한 컨센서스'였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의 한국 정치 배후조종방향이 극명히 드러난다"고 말하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도 김군은 저런 손발을 자주 주물러야 했다.

위상권 관례로서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우선 집권세력의 부패고정화와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진보적 성향의 대권 후보를 내세워 지지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권연합을 하고 교체된 정권을 조정하여 노오의 재발의 무력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배후에는 미국의 영장이 늘 존재했습니. 정두와 정권이 광우에서 학생을 자행할 때 미국의 지·간접적인 조력이 있었다는 것은 진정한 사실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IMF를 앞세워 경제침탈까지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김군은 말한다. 그럼 이러한 반미의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임영은 "각 학교별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각 학교마다 지지연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10명 정도도 아직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최대의 경우 2000여명이 지지대원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붉은 광장의 천막으로 지지방문을 왔던 서울지역 총학생회장(서홍천)의 한 건부는 "학생들의 지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씩 학생들의 동참이 늘고 있어서 성공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단식자의 생활고양생님

자신 차운(법학·법학 07)군은 "식생활 때 단식자들의 눈을 피하는 게 어렵다"며 미안함을 표시하고 "중간고사 기간에 단식을 시작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걱정된다"고 지금은 찾아주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인턴십 중 사임을 제대로 고생시키지 못하는 등 힘들어 하는 모습도 드러났으나 굳이 '이제는 내일 적용해 봐야겠다'고 말하는 듯 했다. '내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리 사생활'은 개개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며 견디겠다'는 김군. 인턴사가 끝나자 학우들을 만나려 가겠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이들의 뒷모습에서 굳건한 청년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최성: 김진형 · 이시현 승인: 류지훈 기자 kickbutt@orgo.net

민노보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폭력집압, 단호히 대처할 것"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정당한 집회를 벌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아무런 경찰중재의 처벌은 물론 인사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해고라는 것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각종 개혁방안이 구획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지금의 정치권과 정부는 권력세력에만 열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형식적이며, 그들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을 포방하고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보면 이는 분명히 허구임이 드러난다.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전 세계의 노동자들과 연대해 초국적 자본에 대항해 진지구축 노동자연대를 구성하자. 신자 유주의 진면모로 인해 민중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연대를 통해 이에 저항해야 한다.

민노보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헌 정정권으로 진정한 개혁 불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지 사안 등을 기본으로, 노동자의 권익옹호와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사업의 기본 노선은 노동시간 단축, 공기업 민영화 반대, 대기업 해의 배가 반대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처럼 법 역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각종 개혁방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과, 과폐,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정치권은 과대포장된 거짓당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개혁을 바리시 않는다. 예를 들어 탄막 방제법도 핵심 조항은 누락되었다. 지금의 정치권에는 권력대립만이 있을 뿐이다. 남북간강화회와 민중들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전대민 공동기자단

동아오츠카

마길린 머리카 데자와
데자와

데자와 전속모델 박지윤

www.tejava.co.kr

데자와 러시아 여행 데자와
데자와를 떠나자, 러시아에서 데자와!

기본 좋게 티한잔 드셨어요?
그럼, 기본 좋게 케스터발에도 참가하세요.
빨간캔대까나 캔의 바코드 러시아 여행의 행운을 가져다준다면 말씀.
기본 좋은 티, 데자와와 함께 일주일간은 러시아에서 보이보세!

응모방법: 1. 데자와 빨간캔대까를 마시 우편으로 보내거나
2. 데자와 캔의 바코드 뒤 뒤리리를 열어서 찍어 보내세요.
(데자와 홈페이지) www.tejava.co.kr 에서 직접 응모처에서 합니다.)

8 80 1097 00000

상 품: 음료와 분 가운에 특별히 꾸민 상품들 드립니다.
대상(200명): 1주일간 러시아 여행 (항공료 포함은 본인부담)
행운상(5,000명): 데자와 열쇠고리

응모기간: 3월 19일 ~ 5월 15일

보낼 곳: 경기도 안성시 만안구 석우2로 450-1 (동아오츠카주)
데자와 러시아여행 케스터발당첨자 및 우편번호 430-042)

발 표: 2001년 5월 31일 데자와 홈페이지

출처: (사) 데자와 (주) 동아오츠카 (주) (대한민국)
동아오츠카의 홈페이지: www.tejava.co.kr
주요 연락처: 02-2600-1111 (주요) 02-2600-1111 (주요) 02-2600-1111 (주요)
행사: 2001년 5월 15일
행사: 2001년 5월 15일
행사: 2001년 5월 15일

